

겸재정선미술관 개관10주년 ‘겸재문화예술제’ 학술심포지엄

‘겸재 정선의 예술 세계’

처사(處士)를 위한 이미지 : 정선의 〈사문탈사도〉 연구

김 가 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contents.....

- I. 머리말
- II.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을 그린 정선의 〈사문탈사도〉
- III. 처사적 삶에 대한 동경 : 조식과 성제원의 고사인물화
- IV. ‘사문탈사’ 고사도의 수용계층
- V. 맺음말

처사(處士)를 위한 이미지 : 정선의 〈사문탈사도〉 연구

김 가 희 *

I. 머리말

현재 간송미술관에는 정선(鄭敼, 1676-1759)이 그린 〈사문탈사도(寺門脫蓑圖)〉 두 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두 점의 그림에는 “절 문에서 도롱이를 벗다”라는 뜻의 ‘사문탈사(寺門脫蓑)’라는 화제가 적혀있다. 한 점은 비단 위에 먹으로 형태를 묘사한 뒤 채색을 한 작품이다. 그림 왼쪽상단에 “사문탈사 겸재(寺門脫蓑 謙齋)”라고 적혀 있다.¹⁾ 그림은 정선이 양천현감에 부임하였던 1740년에서 1741년에 제작한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하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이 작품도 1740년에서 1741년 경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문탈사도〉 역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종이에 먹선만을 이용하여 형태를 묘사하고 인물과 소의 얼굴에만 얹게 선염을 가하였다.²⁾ 이 작품에는 정선이 “사문탈사 을해 팔월 겸재(寺門脫蓑 乙亥 八月 謙齋)”라 관서를 적어두어 이 그림이 1755년 8월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최완수는 〈사문탈사도〉를 이이(李珣, 1536-1584)의 고사(故事)가 그려진 것으로 보았다.³⁾ 이는 《경교명승첩》에 함께 장황되어 있는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편지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⁴⁾ 이에 민길홍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⁵⁾ 조선시대에 “절 문에서 도롱이를 벗다”라는 뜻의 ‘사문탈사’ 고사는 일반적으로 조식(曹植, 1501-1572)과 성제원(成悌元, 1506-1559)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었음을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1) 최완수, 『겸재(謙齋) 정선(鄭敼)』 2(현암사, 2009b), pp. 210-215.

2) 최완수, 『겸재(謙齋) 정선(鄭敼)』 3(현암사, 2009c), p. 401.

3) 앞의 책(2009b), pp. 210-215.

4) 위의 책, p. 211의 삽도66 〈작여장운(昨與長胤)〉.

5) 민길홍, 「겸재 정선의 인물화: 기년작을 중심으로」, 『정선의 삶과 예술: 겸재정선기념관 개관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겸재정선기념관, 2010), pp. 113-116.

밝혔다. 이이의 「본시(本詩)」를 그렸다고 보기에 이이가 소를 타고 성혼을 방문한 곳이 절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조식이 소를 타고 해인사(海印寺)의 성제원을 만났던 ‘사문탈사’의 고사의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기 때문에 그림 속 눈이 덮힌 산사의 겨울 풍경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민길홍은 〈사문탈사도〉가 “겨울을 배경으로 한 이이의 시와 우정을 상징하는 사문탈사 고사를 접목하여 새로운 고사도를 탄생하게 한 것”이라 추정하였다.⁶⁾

이 글은 1740년 겨울 이병연이 정선에게 보낸 편지를 재번역하여 〈사문탈사도〉가 조식의 고사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조식이 해인사에서 성제원과 만난 ‘사문탈사’ 고사는 18세기에 들어 정선뿐만 아니라 다수의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보통 조선에서 고사인물화로 그려지는 고사는 대부분 중국의 고사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문탈사’는 조선에서 유래한 고사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정선은 무슨 연유에서 ‘사문탈사’라는 화제를 그리게 되었을까? 당대인들은 정선이 그린 조식과 성제원에 대한 고사도에서 그들의 어떤 면을 기억하고자 하였을까? 16세기 인물인 조식과 성제원의 고사도가 200년 후인 18세기 중엽에 갑자기 유행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아울러 이러한 사문탈사 고사도를 소비하였던 계층은 누구였을까? 본고의 목적은 정선의 〈사문탈사〉를 둘러싼 이러한 질문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선의 고사인물화가 처사적인 삶을 동경하던 이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긍정과 위로가 되었음을 재발견해보고자 한다.

Ⅱ.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을 그린 정선의 〈사문탈사도〉

정선의 〈사문탈사도〉가 이이의 고사를 그린 것으로 논의되어왔던 데에는 1741년 이병연이 정선에게 보낸 편지를 오독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이 편지를 새롭게 탈초하여 번역한 것이다.

어제 큰 아드님이 자세하게 쓰신 것을 보고 다소 들은 바가 많습니다. 어젯밤 눈에 황색명주(黃絢明珠)를 펴놓고 일찍 일어나 생각하니, 궁하고 병든 몸에 대해 굳이 물을 것은 없습니다. 십경(十景)은 보내 주신 것에 의해서 다 읊었습니다. 속히 붓을 들어 회포를 펼치고 싶으니 틈나시는대로 그림의 남은 폭에 그려 보내 주십시오. 다시 제(題)를 써서 보내드리는데 ①‘사문탈사(寺門脫蓑)’는 형(兄)이 익숙한 바입니다. ② 소를 타고 가신 율곡(栗谷)의 고사 「본시(本詩)」에 이르기를 “올해도 다 저물고 눈이 산에 가득한데, 들길은 가늘게 고목나무 사이로 갈렸구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저물녘 사립작을 두드려 맑은 모습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하니, 작은 방에 갈포 걸치

6) 위의 논문, p. 114.

고 쥘방석을 깔고 있네”라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남겨두겠습니다. 큰 사위가 돌아 간다기에 갖춰 쓰지 못하오니 오직 살펴보옵소서. 삼가 드림.⁷⁾ [번호와 밑줄은 필자]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편지에서 이병연이 한 개의 화제(畫題)를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문탈사’가 ‘울곡의 고사 「본시(本詩)」’라 생각했거나 ‘사문탈사’와 ‘울곡의 고사 「본시」’가 하나의 그림에서 합쳐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병연이 두 개의 화제를 정선에게 제안한 것이라 생각한다. 정선에게 이미 익숙하였던 ‘사문탈사’와 익숙하지 않아 시를 직접 인용해서 보내준 이이의 「본시」 이렇게 두 개의 화제를 정선에게 그림으로 그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사문탈사도>가 이이의 「본시」를 그린 것이 아니라는 근거는 이이의 시가 그림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위의 이병연의 편지에서 이병연이 인용한 이이의 시는 다음과 같다.

“올해도 다 저물고 눈이 산에 가득한데, 들길은 가늘게 고목나무 사이로 갈렸구나.
소를 타고 어깨 으스대며 어디로 가느냐. 내 우계만에 있는 미인이 그리워서라네.
저물녘 사립짜를 두드려 맑은 모습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하니, 작은 방에 갈포 걸치고 쥘방석을 깔고 있네.
고요한 긴 밤을 잠 안 자고 앉았으니, 벽에 걸린 등불만 깜박거리네.
반평생에 이별의 슬픔 많았으니, 다시금 천산에 험한 길을 생각하게 되네.
이야기 끝에 뒤척이다가 새벽닭이 울어, 눈 들어 보니 온 창문엔 서리 달만 차잡구나.”⁸⁾

이 시는 『울곡선생전서』에 「눈 속에 소를 타고 호원(浩原)을 방문한 다음 작별하면서(雪中騎牛訪浩原敍別)」라는 제목의 시로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이이가 1578년 겨울 눈이 많이 오는 날 파주 우계(牛溪)에 머물고 있던 성훈(成渾, 1535-1598)을 찾아 가서 지은 시이다. 이병연은 편지에서 위의 밑줄 친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 시에는 눈이 쌓인 산과 산 사이의 들길을 소를 타고 지나는 인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를 탄 주인공은 해질 무렵 약속장소에 도착하여 사립문을 열고 작은 방에 앉아있는 인물을 만난다. 긴 겨울밤 내내 이야기를 나누

7) “昨與長胤細敘，多所承聞。夜雪，黃紬想早起，窮病不須問。十景依來示完詠。欲速得散毫開懷，幸承隙圖之剩幅。又書題以去，寺門脫蓑，兄所慣也。騎牛栗谷事 本詩曰 歲云暮矣雪滿山，野逕細分喬林間。又曰柴門晚扣揖清癯 小室擁褐依蒲團而已。餘留。長郎歸達，不備，惟雅照。謹狀”，최완수, 앞의 책(2009b), p. 211의 삽도66 <작여장운(昨與長胤)>에 실린 편지의 도판을 새롭게 탈초하고 번역하였다. 탈초 및 번역에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종묵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李珣, 「雪中騎牛訪浩原敍別(눈 속에 소를 타고 호원(浩原)을 방문한 다음 작별하면서)」, 『栗谷先生全書』卷2, “歲云暮矣雪滿山，野逕細分喬林間，騎牛聳肩向何之，我懷美人牛溪灣，柴扉晚扣揖清癯，小室擁褐依蒲團，寥寥永夜坐無寐，半壁青熒燈影殘，因悲半生別離足，談餘輒轉曉鷄鳴，舉目滿窓霜月寒”.

다 새벽닭이 우는 아침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이의 시는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며 소를 탄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사문탈사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문탈사도> 속 화제인 “절 문에서 도롱이를 벗는다.”라는 내용이 이이의 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문탈사도>에는 하얀 고깔과 장삼을 쓴 승려들이 나와 합장을 하며 소에 탄 인물에게 인사를 드린 뒤 도롱이를 벗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승려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림의 건축물은 사립문이 있는 민가가 아니라 사찰이다. 이런 점에서 <사문탈사도>는 이이가 성훈과 만나서 지은 시를 그린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에 절 문 앞에서 ‘도롱이를 벗는 행위’ 즉 ‘탈사’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었던 단어이다. 이 고사는 18세기부터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조식의 학문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이 기록되어있는 『덕천사우연원록(德川師友淵源錄)』의 「동주(東洲) 성제원(成悌元)」 조항에 이 고사가 나타난다.⁹⁾ 또한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문집에 실린 「해인사창수시서(海印寺唱酬詩序)」에도 이 고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¹⁰⁾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식은 지리산으로 가는 길에 보은(報恩)의 현감이었던 성운(成運, 1497-1579)을 방문하였다. 조식은 이때 성제원(成悌元, 1506-1559)과 처음 만났다. 그런데 조식은 이 자리에서 성운에게 오래 벼슬살이를 하는 “내구관(耐久官)”이라고 놀렸다. 그러자 성제원은 자신이 성운을 붙잡아서 그렇게 되었다며 팔월 보름에 해인사에서 달이 뜨는 날 조식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기약한 날이 되자 조식은 소를 타고 가는 도중 큰 비를 만나 겨우 개울을 건너 절 문에 들어섰는데 성제원도 벌써 도착하여

9) 『덕천사우연원록』은 하우선(河禹善, 1894-1975)에 의해 주도적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모두 353인의 인물들이 실려있다. 이는 『산해사우연원록(山海師友淵源錄)』(1636년 간행), 『남명선생별집(南冥先生別集)』의 「사우록(師友錄)」(1764년 간행), 『산해연원록(山海淵源錄)』(1894년 간행)을 보완하여 집필된 것이다. 하우선, 『덕천사우연원록(德川師友淵源錄)』, 이상필·공광성 역주(景仁文化社, 2011), pp. 18-20.

10) 박趾源, 「海印寺唱酬詩序」, 『燕巖集』卷1, “慶尙道觀察使兼巡察使李公泰永士昂行部, 路入伽倻, 宿海印寺. 善山府使李采季良, 居昌縣令金錄孟剛暨趾源, 逆候會寺下, 皆公之里閭舊要. 以次參見, 公各詢當邑年成民之疾苦, 然後起更衣. 因剪燭命酒, 寬假禮數, 歡然道舊. 殊不見其高牙大纛擁七十二州以自尊大, 而在列者, 亦不自覺其身在大嶺千里之外, 恍然若履屐微逐於平溪盤池之間, 甚盛事也. 明日公拈韻, 各賦二律, 命趾源序之, 趾源復于公曰, 昔曹南冥之還山也, 歷訪成大谷于報恩, 時成東洲以邑倅在座, 與南冥初面也. 南冥戲之曰, 兄可謂耐久官也. 東洲指大谷笑謝曰, 正爲此老所挽. 雖然, 今年八月十五日, 當待月海印寺, 兄能至否. 南冥曰, 諾. 至期, 南冥騎牛赴約, 道大雨, 僅渡前溪入寺門東洲已在樓上, 方脫簑. 噫, 南冥處士也. 東洲時已去官, 而盡夜相語, 不離於生民休戚. 寺僧至今相傳爲山中故事. 趾源歲迎轎軒, 入此寺已三更, 使亦可謂耐久官矣. 非有候月邂逅之約, 而不敢避甚風疾雨, 每入寺門, 不期而會者, 常七八邑. 梵宇如傳舍, 縉徒如館妓, 臨場責詩如催博, 進供張如雲, 簫鼓咽轟, 雖楓菊交映, 流峙競奇, 亦何補於生民之休戚哉. 每一登樓, 未嘗不愀然遐想于昔賢之雨簑也. 並錄此, 以備山寺掌故. 乙卯九月廿日, 安義縣監朴趾源仲美, 序. 曹南冥名植, 成大谷名運, 成東洲名悌元. 俱徵士. 報恩縣名, 士之出處一也. 處而不志乎生民休戚, 則髡緇而已矣. 出而無涉於楓菊巖泉, 則徒隸而已矣. 南冥東洲之禪榻憂民, 按使太守之官尊賦詩, 其事正相反, 而其志則未始不同. 不爲舊要而昵慢, 不爲上官而諂屈, 若風若頌, 文旨剴切”(민길홍, 앞의 논문, p. 113에서 재인용).

도롱이를 벗고 있었다.

정선의 <사문탈사도>는 이러한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정선의 그림에는 고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소를 타고 개울을 건너 절 문 앞에서 도롱이를 벗는 장면이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식과 성제원은 8월 15일인 여름에 만났는데 정선의 그림에는 나무와 지붕에 하얀 호분으로 눈이 표현되어 있어 계절적 배경이 겨울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민길홍이 지적한 바대로 이병연이 정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겨울이기 때문에 고사도를 변형하여 겨울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¹¹⁾ 또는 정선이 ‘사문탈사’의 고사의 계절적 배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만남의 계절적 배경이 여름인지 겨울인지는 고사의 서사적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사문탈사’의 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 문 앞에서 도롱이를 벗는 장면’이다. 벼슬을 버리고 친구를 만나러 멀리 해인사까지 찾아왔던 아름다운 만남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사문탈사도>는 겨울로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Ⅲ. 처사적 삶에 대한 동경: 조식과 성제원의 고사인물화

16세기에 일어난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은 200년이 지난 18세기 이후에 고사로 회자되며 그림으로 다수 제작되었다. 현전하는 작품으로는 앞 장에서 언급한 정선이 1740년에서 1741년에 제작한 <사문탈사도>와 1755년에 그린 <사문탈사도> 두 점 뿐이다.

그러나 문헌을 살펴보면 정선과 동시대인이었던 이윤영(李胤永, 1714-1759)도 ‘사문탈사’ 고사와 관련된 <해인탈사도(海印脫蓑圖)>를 제작하였음이 확인된다.¹²⁾ 1822년 박규수(朴珪壽, 1807-1876)는 합천 현감으로 부임하는 이노준(李魯俊, 1769-1849)을 송별하며 「강양죽지사(江陽竹枝詞)」 13수를 지었다.¹³⁾ 이 중 합천 부근 가야산 해인사에 대한 시에서 “누가 다시 소를 타고 찾아가 도롱이를 벗을까(誰復騎牛訪脫蓑)”라는 구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시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조식과 성제원이 해인사에서 만났던 고사를 설명하며 이윤영이 그린 <해인탈사도>가 있다고 하였다. 박규수는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손자였다.¹⁴⁾ 앞장에서 언급

11) 민길홍, 위의 논문, p. 114.

12) 朴珪壽, 「江陽竹枝詞十三首 拜別千秀齋李公之任 并序」, 『礪齋先生集』 卷1, “(중략) 秋入江陽水不波/ 凌空石塔嵒嵒峨/ 一林疏雨紅流路/ 誰復騎牛訪脫蓑. 世傳曹南冥植訪成大谷運于報恩. 時成東洲梯元以邑宰在座. 南冥初證契, 仍戲曰兄可謂耐久官也. 東洲指大谷笑謝曰正爲此老所挽. 然今中秋當待月海印, 兄能至否, 南冥曰諾. 至期南冥騎牛赴約, 道遇雨僅渡前溪, 入寺門, 東洲已在樓上, 方脫蓑. 曹與二成俱徵士. 丹陵處士李公胤永有海印脫蓑圖”

13) 박규수의 「강양죽지사」에 대해서는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pp. 90-95.

한 바와 같이 박지원도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인 ‘사문탈사’ 고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박지원은 이윤영과 이인상(李麟祥, 1710-1760)과 함께 교유하며 그들의 화풍에 영향을 받은 회화 작품들을 제작한 적이 있다.¹⁵⁾ 박지원의 아들인 박종채(朴宗采, 1780-1835)의 『과정록(過庭錄)』에 의하면 박지원은 이윤영과 이인상과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박지원이 이들과 어울리며 그린 〈일출도(日出圖)〉, 〈군선도(羣仙圖)〉, 〈구룡연도(九龍淵圖)〉가 집안에 전한다고 하였다.¹⁶⁾ 박지원은 이윤영과 회화를 통해 깊은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이윤영에게 〈해인탈사도〉를 받아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후 박규수와 같은 박지원의 후손들에게 이윤영의 〈해인탈사도〉가 이 집안에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박규수와 매우 절친하였던 신석우(申錫愚, 1805-1865)의 문집에도 ‘사문탈사’를 그린 〈탈사도(脫簑圖)〉라는 작품이 언급되어 있다.¹⁷⁾ 「비를 뚫고 산속의 누각에서의 약속에 가다(帶雨赴山樓之約)」라는 시에서 신석우는 가야산(伽倻山)의 아름다운 골짜기와 숲을 묘사하며 “사람을 시켜 〈탈사도〉를 다시 그리게 하였다(倩人重寫脫簑圖)”라고 언급하였다.¹⁸⁾ 신석우는 해인사에 대한 시를 지을 때마다 “탈사고사(脫簑故事)”를 언급하였다.¹⁹⁾ 그는 화가를 고용하여 〈탈사도〉를 모사하게 하였다. 신석우는 박규수와 친분이 매우 깊었기 때문에 박규수에게 이윤영의 〈해인탈사도〉를 빌려서 모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신석우 가문에서도 가전되었던 〈탈사도〉가 남아서 다시 중모하게 하였을 수도 있다. 이는 이들 그룹에서 사문탈사 고사와 관련된 고사인물화가 다수 제작되었음을 확인되는 기록이다.

이렇게 18세기에 정선과 이윤영은 ‘사문탈사’와 관련된 고사인물화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이병연, 박지원, 신석우의 가문에서 가전되며 후손들에 의해 대대로 회자되었다. 이들에게 조식과 성제원에 관련된 ‘사문탈사’ 고사는 어떤 의미였으며 어떤 목적에서 고사도를 제작하였을까?

먼저 그림을 살펴보면 정선의 〈사문탈사〉 속 도롱이를 입고 소를 탄 주인공의 모

14) 박규수의 서화론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 687-702 참고.

15) 박지원과 이윤영의 회화 교류에 대해서는 이순미, 「丹陵 李胤永(1714-1759)의 繪畫世界」, 『미술사학연구』(한국미술사학회, 2004), p. 264; 박지원의 예술론에 대해서는 정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태학사, 2000), pp. 1-365 참고.

16)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과정록(過庭錄)」, 박희병 옮김(돌베개, 1998), p. 257.

17) 신석우와 박규수와의 교유에 대해서는 이관성, 「海藏 申錫愚의 생애와 문학론」, 『한문학보』 17(우리한문학회, 2007), pp. 473-497; 김명호, 「海藏 申錫愚의 『入燕記』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32(한국고전문학회, 2007), pp. 465-498 참고.

18) 申錫愚, 「帶雨赴山樓之約」, 『海藏集』卷3, “冥濛林雨趁人疎, 丹壑爭流碧樹紆, 萬疊伽倻山裏想, 倩人重寫脫簑圖”.

19) 申錫愚, 「梅雨脫簑」, 『海藏集』卷5, “處處瓜墜水漫平, 青郊幫屐雨中行, 溪山靛畫濛濛意, 寺閣淋鈴滴滴聲, 好遣官閑多洗沐, 從他老去作風情, 禪牀一夜清無寐, 自笑浮生日曛名”; 申錫愚, 「海印寺, 次黃太史詩」, 『海藏集』卷5, “(중략)居平靈界夢魂迷, 及老眞身到得齊, 萬象森羅香水海, 千峯匝匝白雲谿, 脫簑故事僧樓上, 佔得遺墟內院西, 對雨吟望何所見, 殿頭突兀塔身低, 右海印寺”; 申錫愚, 「金陵唱酬」, 『海藏集』卷8.

습은 ‘은일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소를 타고 있는 인물의 모습은 왜관수도원 소장 《겸재정선화첩(謙齋鄭澈畫帖)》의 〈기우취적도(騎牛吹笛圖)〉와 유사하다. 또한 도롱이를 입고 있는 모습은 《겸재정선화첩》의 〈풍우기려도(風雨騎驢圖)〉 및 《경교명승첩》의 〈설평기려(雪坪騎驢)〉의 인물 표현과 흡사하다. 말이 아닌 소를 타고 도롱이를 쓰고 비를 맞고 있는 인물 표현은 매우 탈속적이며 검박한 은자(隱者)의 모습을 보여준다.

당대인들은 조식과 성제원의 고사 및 고사도에서 그들의 학문적 계보나 도학자로서의 이미지를 기대하지 않았다. 박지원은 해인사에 조식과 성제원의 고사를 떠올리며 이들 모두 ‘징사(徵士)’임을 강조하였다.²⁰⁾ 박지원이 이들 고사에서 감명 받은 점은 이들이 이미 관직을 떠난 처사였으나 밤새도록 나눈 대화 내용이 민생문제였다는 점이다. 또한 박지원은 “선비의 출사(出仕)나 은거(隱居)는 그 뜻이 한가지이다. 은거한다하여 민생 문제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승려일 따름이요, 출사한다 하여 산수 자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노예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²¹⁾ 즉 〈사문탈사도〉는 조식과 성제원이 세속의 명예를 버리고 깊은 산 사찰에서의 약속을 지켰던 그들의 ‘처사(處士)’적인 삶에 대한 존경이 담겨있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정선의 〈사문탈사도〉에 나타난 처사적인 삶에 대한 동경은 정선의 다른 고사인물화에서도 이어진다. 왜관수도원 소장 《겸재정선화첩》에는 정선의 고사인물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정선의 고사인물화가 그려진 화첩들 중 진작이 분명해 보이는 대표적인 작품이다.²²⁾ 이 화첩에 그려진 공자(孔子, 기원전 551-기원전 479), 임포(林逋, 967-1028), 노자(老子, 생물년 미상), 장량(張良, 기원전 250-기원전 186년 경), 제갈량(諸葛亮, 181-234), 정령위(丁令威, 생물년 미상), 정이(程頤, 1033-1107), 장재(張載, 1020-1077),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은 학자나 관료로써 본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²³⁾ 이들은 고향이나 깊은 산에 은거하거나 자

20) 주10 참고; 조식을 16세기에 대두하기 시작한 ‘처사형(處士型) 사림(士林)’으로 분류한 연구는 申炳周, 「16세기 處士型 士林의 擡頭와 學風」, 『奎章閣』 21(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pp. 33-58; 薛錫圭, 「16세기 處士型 士林의 性理學理解와 出處觀: 花潭徐敬德과 南冥曹植의 경우」, 『南冥學』 9(南冥學研究院, 2001), pp. 119-162.

21) 위와 같음.

22) 정선이 송나라의 성현을 그린 고사인물화로 우학문화재단 소장의 《겸재화》 화첩과 1988년 대림화랑의 ‘겸재정선전(謙齋鄭澈展)’에 출품된 〈염계상련(漣溪相蓮)〉과 〈전천화류(前川花流)〉,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칠선생시화첩(七先生詩畫帖)》이 있다. 이 작품들은 정선의 화풍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여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용인대학교 박물관 편, 『사인심취(使人心醉): 우학문화재단 소장 조선의 名畫』 (용인대학교 박물관, 2010), pp. 36-49; 大林畫廊 編, 『特別企劃 謙齋鄭澈展』 (大林畫廊, 1988)의 도 28, 29; 정경숙, 「謙齋 鄭澈(1676-1759)의 《七先生詩畫帖》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45(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pp. 359-394; 石附啓子, 「七先生詩畫帖」, 『國華』 1423(國華社, 2014), pp. 39-42;

23) 왜관수도원 소장 《겸재정선화첩》내의 고사인물화에 대해서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돌아온 문화재 총서1: 왜관수도원으로 돌아온 겸재정선화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3), pp. 30-53; 조인수, 「돌아온 보물, 돌아보는 성현: 왜관수도원 소장 《겸재정선화첩》의 고사인물화」, 『돌아온 문화재 총서

연과 함께 파초를 애호하고 약초를 재배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성리학의 학문적 업속성이나 도통(道統)을 보여주기보다는 속세를 초탈하여 자연과 벗 삼아 은거하는 ‘처사’로서 인물들이 표현되었다.²⁴⁾ 이는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의 《십이성현화상첩(十二聖賢畫像帖)》이나 문헌으로 확인되는 어유봉(魚有鳳, 1672-1744)의 〈10폭 병풍〉, 유한준(俞漢雋, 1732-1811)의 〈송육선생육사화병풍(宋六先生六事畫屏風)〉과 같이 도학자의 계보를 시각화한 작품과 매우 차별된다.²⁵⁾ 정선은 성리학자에 대한 고사인물화를 통해서 학문적 계보를 표현하기보다 처사적인 삶에 대한 전망이 엿보이는 이미지를 제작한 것이다.

IV. ‘사문탈사’ 고사도의 수용계층

〈사문탈사도〉를 비롯하여 ‘처사적 삶’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는 정선의 고사인물화를 소비한 계층은 누구였을까? 18세기에 ‘사문탈사’와 관련되는 고사도를 직접 제작하거나 소장하였던 이들은 이병연, 이윤영, 박지원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노론(老論)’으로 안동김문(安東金門)이 주도한 ‘석실서원(石室書院)’의 영향력에 상당히 노출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안동김문은 17세기 이후 봉당정치가 격화될수록 은사(隱士)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져만 갔다.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은 백운산(白雲山)에서 은거하며 살고 싶어 하였으나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 김창집(金昌集, 1648-1722) 역시 기사환국 이후에 은거하였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김창집은 숙종(肅宗, 1661-1720) 후반기에 영의정까지 올랐으나 결국 1721년 신임환국으로 사사(賜死)되었다. 안동김문 수항계(壽恒系)에서 마침내 ‘처사적인 도학자’로서의 삶을 실현했던 이는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이었다.

1722년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죽고 신임환국(辛壬換局)의 여파로 석실서원에서 김수항과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출향되면서 석실서원의 분위기는 위축되었다. 이러한 석실서원을 다시 부흥시킨 이는 김원행이었다.²⁶⁾ 흥미로운 점은 김

1: 왜관수도원으로 돌아온 겸재정선화첩』(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3), pp. 163-193.

24) 정선의 고사인물화에 대해 “고전적 이상형인 고사(高士)를 실물적 이상경인 진경 안에 이입하여 탈속은일의 정신을 익히며 실천하는 은자의 모습으로 연출하였다”라고 송희경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송희경, 「18세기 전반 회화의 새 경향: 정선 고사인물화의 유형과 그 표상」, 『한국문화연구』 17(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9), pp. 219-254.

25) 魚有鳳, 「屏畫十贊」, 『杞園集』卷22; 俞漢雋, 「宋六先生六事畫屏讚 爲永嘉金季明作. 濂溪愛蓮, 明道訪花隨柳, 伊川涪江風浪, 康節百原整襟, 涑水樂園閑居, 朱子衡嶽賞雪, 合六則」, 『自著』 卷19; 윤두서의 성현도에 대해서는 車美愛, 「恭齋 尹斗緒 一家의 繪畫 研究」(弘益대학교 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 論文, 2010), pp. 357-383.

26) 이경구, 『조선후기 安東 金門 연구』(일지사, 2007), pp. 221-226.

원행이 주도한 석실서원이 과거(科擧) 시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²⁷⁾ 김원행이 지은 「석실서원학규(石室書院學規)」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성현(聖賢)의 글이나 성리설(性理說)이 아니면 서원에서 펼치고 읽지 말라. 사서(史書)를 읽는 것은 허락한다. 과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데서 익히도록 한다.”²⁸⁾

석실서원에서는 성리학에 관한 공부만 허용되었으며 과거 공부는 철저히 금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벼슬하여 관직에 나아간다면 시세를 쫓고 권세에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라고도 언급하여 관직 생활이 철저히 금기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렇게 김원행이 과거제와 출사를 반대하며 ‘처사’로써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사화로 인해 그의 가문이 처했던 상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그가 19살이던 1721년 신임환국으로 인해 친조부 김창집과 친부 김제겸(金濟謙, 1680-1722)이 사사(賜死)되었으며 친형 김성행(金省行, 1696-1722)은 옥사(獄死)하였다. 이 일은 젊은 김원행에게 매우 큰 상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원행이 평생 출사를 하지 않으며 ‘처사지향적인 도학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선에게 <사문탈사도>를 그려달라고 요청했던 이병연, <해인탈사도>를 그렸던 이윤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의 작품을 가문 내에 소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지원은 모두 ‘석실서원’의 영향권에 있었던 인사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과거제를 반대하고 벼슬을 거부하며 처사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었다.

먼저 이병연은 1696년 겨울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석실서원의 강학이 재개되자 동생 이병성(李秉成, 1675-1735)과 함께 석실서원에서 수학하였다. 이병연이 김창흡과 사제관계를 맺으며 석실서원에서 강학에 참여한 이후 시론(詩論)이 변모되었음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이다.³¹⁾ 이후 이병연은 금화현감(金化縣監), 백천군수(白川郡守), 삼척부사(三陟府使)를 지낸 뒤 1735년 이후부터는 관직에 임명되었어도 거부하며 나가지 않았다.³²⁾ 정선에게 <사문탈사도>를 주문하였던 1740년에서

27) 조성산, 「18세기 후반 石室書院과 지식·지식인의 재생산」, 『역사와 담론』 66(호서사학회, 2013), pp. 182-194.

28) 金元行, 「石室書院學規」, 『湊湖集』 卷14, “一. 非聖賢之書性理之說, 則不得披讀于院中. 史冊則許讀. 若欲做科業者, 必習于他處”.

29) 위와 같음.

30) 김원행의 처사로서의 삶과 의리관에 대해서는 李炯丘,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교육 활동」, 『진단학보』 88(진단학회, 1999), pp. 232-234

31) 이병연의 석실서원에서 강학활동에 대해서는 金炯述, 「槎川 李秉淵의 詩文學 研究」(서울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文學專攻 碩士學位論文, 2006), pp. 19-25 참고,

1741년경은 그가 서울로 돌아와 취록헌(翠麓軒)에 머물며 꽃을 가꾸고 그림을 완성하던 한가로운 시기였다. 그는 죽기 전까지 11차례에 걸쳐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끝까지 거절하며 ‘처사’로서 삶을 마감하였다.³³⁾

이어서 <해인탈사도>를 그린 이윤영은 이병연보다 더욱 처절하게 처사를 지향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청류처사형(淸流處士型) 문인(文人)’으로도 분류되는 이윤영 역시 안동김문의 후손들과 매우 친밀하였다.³⁴⁾ 이윤영은 권력의 핵심에 있던 노론 문인이었지만 임인옥사(壬寅獄死)로 인해 가문의 부침이 있었고 이것은 그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이윤영은 자발적으로 은거를 선택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처사’로 살았다. 이윤영이 석실서원에서 직접 강학을 받았다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다만 그의 문집 『단릉유고(丹陵遺稿)』에는 임매와 함께 석실서원을 방문한 뒤 쓴 『석실록(石室錄)』이 남아있다. 그는 석실에 도착하여 비에 두 번 절을 한 뒤 시를 지어 “인간사 천 가지는 내 이미 버렸으니 한 구역 산야에서 남은 여생 보내리”라며 ‘처사’로서의 삶을 다짐하였다.³⁵⁾

다음으로 박지원은 이윤영의 <해인탈사도>를 소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평생 ‘처사’를 지향하며 살았다. 홍대용(洪大容, 1731-1783)과 함께 석실서원의 김원행 밑에서 수학하였던 박지원은 과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대부로 태어나 어렸을 적에는 제법 글을 읽을 수 있다. 자라서는 공령(功令)을 배워 수식하는 변려제 문장을 익힌다. 과거에 합격하고 나면 이를 변모(弁髦)나 전제(筌蹄)처럼 여기고 합격하지 못하면 늙도록 거기에 매달린다. 그러하니 어찌 다시 이른바 고문사(古文辭)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라고 하였다.³⁶⁾ 그는 1771년 이후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과거로 인해 글의 뜻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과거시험이 진정한 문장공부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³⁷⁾

이렇게 <사문탈사도>와 관련된 이병연, 이윤영, 박지원은 모두 ‘처사’ 지향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노론’으로 석실서원의 문화권 하에 있었다. 당시 석실서원에는 과거제를 반대하고 관직을 거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관직생활을 버리고 처사적인 삶을 선택하였다. 이들에게 조식과 성제원

32) 위의 논문, pp. 25-48.

33) 위의 논문, pp. 45-46.

34) 최선훈, 「18세기 淸流處士型 文人의 형성과 丹陵 李胤永의 詩文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pp. 5-17.

35) 李胤永, 「到院, 與伯玄共賦唐韻」, 「石室錄」, 『丹陵遺稿』卷5, “印須我友出門東, 石室山前路自通, 驪水遠來烟盡處, 廣陵只在月明中, 江雲片片隨南鴈, 廟檣蕭蕭鳴北風, 讀向長碑仍再拜, 人雖相遠此心同. 其二 空江上下消薄烟, 好臥高樓剩看天, 雲水微明鷗在渚, 蘆花稍動客迴船, 孤琴歷歷秋星落, 古卷迢迢曉夢懸, 人事千端吾已了, 一區丘壑送餘年”.

36) 朴趾源, 「自笑集序」, 『燕巖集』卷3, “士大夫 生而幼能讀書 長而學功令 習爲駢儷藻會之文 既得之也 則爲弁髦筌蹄 既未得之也 則白頭碌碌 豈復知有所謂古文辭哉”(조성산, 앞의 논문, pp. 190-191에서 재인용).

37) 박지원과 홍대용의 과거(科擧)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위의 논문, pp. 189-191 참고.

의 처사적인 삶을 그린 〈사문탈사도〉는 그들의 삶을 긍정해주며 위로해주는 그림이었다.

V. 맺음말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에 대한 ‘사문탈사’ 고사는 정선과 이윤영에 의해서 〈사문탈사도〉로 그려졌다. 〈사문탈사도〉는 이병연, 박지원과 같은 인물들이 소장하였던 작품이었다. 이들은 과거제를 반대하거나 관직생활을 거부하고 ‘처사’로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노론 인사들은 석실서원의 문화적, 학문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18세기 중엽 김원행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석실서원은 과거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이런 영향 하에 노론 인사들은 과거제를 반대하며 관직생활을 거부하는 ‘처사’로서의 삶을 지향하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식인은 과거 시험을 떠나 순수하게 학문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는 담론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선과 이윤영의 〈사문탈사도〉는 그들의 삶을 긍정해주는 이미지였다.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은 16세기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 고사는 200년 후인 18세기에 다시 소환되어 그림으로 그려졌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에 다시 부활하게 된 데에는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이다. 정계에서 멀리 떨어져 처사로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을 그린 〈사문탈사도〉는 그들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림이었다.

